

# 독일시 수업 모델

## -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안은영  
(서울여자대학교)

Ahn, Eun Young. (2016). Ein Unterrichtsmodell für deutsche Lyrik – Ein Seminarbericht.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9, 115-131.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aufzuzeigen, was und wie im deutschen Lyrik-Unterricht gelesen und behandelt werden sollte, um den Literaturunterricht in der koreanischen Germanistik als Auslandsgermanistik, den Forderungen der Zeit und den Interessen und Voraussetzungen der Studierenden entsprechend, noch motivierender und belebender zu gestalten. Bei der konkreten Unterrichtsgestaltung ist der Ablauf der vorgeschlagenen Verfahren jedoch nicht zwingend, vielmehr sind Variationen immer möglich. Die Entscheidung über die Reihenfolge einzelner Arbeitsschritte hängen dabei durchaus von den jeweiligen Texten und Unterrichtssituationen sowie vom Wissens- und Kompetenzniveau der jeweiligen Lerngruppe ab. Die vorliegende Arbeit möchte einen Beitrag dazu leisten, die derzeitige problematische Lage des deutschen Literaturunterrichts in Korea zu verbessern, und darüber hinaus den koreanischen Germanisten didaktisch-methodische Orientierungen für einen deutschen Literaturunterricht geben.

**Key Words:** Auslandsgermanistik, Literaturunterricht, deutsche Lyrik, Textauswahl, Unterrichtsmodell

###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중·후반 이래로 각 분야에서 점점 커지는 실용성 및 실용적 지식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 전반에 걸친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전반적인 문학의 위기와 더불어 외국어 관련 학과에서의 문학교육의 위기로 이어졌다. 한국 독어독문학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상황의 극복방안이 나름대로 꾸준히 제시되었고, 문학수업에 관한 일련의 성찰들이 그 내용과 방법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인 문학텍스트 중심의 다소 평면적인 문학수업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각 중심의 입체적인 수업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또한 문학수업을 다른 과목, 예를 들어 영화수업과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과 시도들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그러나 문학을 수업의 보조적인 위치로 전락시키거나, 더 나아가 문학수업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문학텍스트를 수업의 중심으로 하면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단순히 문헌학적인 수업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적 요구와 학생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문학수업의 한 예로서 독일시 수업 모델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문학수업에 관한 지금까지의 다양한 교수법·방법론적 연구의 틀 안에서 독일시 수업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오기는 했지만(이광복, 2009; 이영희, 1999; 정경량, 2002; 채연숙, 2000, 2004), 그 양적인 면에서 볼 때 문학의 다른 장르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고는 필자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세 학기에 걸쳐 독어독문학 전공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 <독일시의 이해>를 수업의 한 사례로서 소개함으로써 독일문학 관련 수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1</sup> 실제 수업현장의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장교육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고는 따라서 학술적 가치나 학문적인 토론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 II. 강의의 방향 및 목표

강의 <독일시의 이해>는 강좌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특정 시인이나 문학사조 혹은 특정한 시론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대표적인 독일 시인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면서 학생들에게 독일 시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강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래 두 가지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첫째, 한국 독어독문학은 비독일어권 독어독문학이라는 점이다.<sup>2</sup> 따라서

<sup>1</sup> 학기마다 그 이전 수업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시문학 텍스트의 선정이나 수업의 진행을 개선하였다. 이 때에 수강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sup>2</sup> 비독일어권 독어독문학(Auslandsgermanistik)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독일어가 외국어이며 독일 문화가 낯선 외국문화라는 점, 외국어문헌학(Fremdsprachenphilologie)으로서의 독어독문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 학과의 목표와 과제 및 기능,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조건, 각 해당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교육 환경과 전통, 학습할 수 있는 양, 학습방법 등 - 독일어권 독어독문학(Inlandsgermanistik)과 구별된다.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민족문헌학 Nationalphilologie”으로 이해되는 독어독문학은 19세기 “민족문학의 발전을 위한 보조학문 Hilfswissenschaft für die Entwicklung einer Nationalliteratur”으로서 그리고 “민족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für die Entwicklung einer nationalen Kultur insgesamt” 생겨났다 (Ehlich, 1994, S. 303). 민족문헌학으로서의 독어독문학은 독일 언어, 독일 문학 그리고 독일 문화 속에서 독일적인 것 das Deutsche 을 규정해 내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루면서 민족 언어, 민족 문학 그리고 민족 문화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수업은 외국어 문학수업으로서 모국어 문학수업을 넘어서는 특수한 목표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국어 문학수업이 문학작품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다루면서 그 작품의 미학적 가치 및 전반적인 문학적 지식의 전달에 집중하는 반면 (Paefgen, 1999, S. 57ff.와 S. 89 참조), 외국어 문학수업은 그러한 문학적 지식의 전달을 넘어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까지도 전달해야 한다. 이때 문학작품은 단순히 하나의 예술작품으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한 사회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관계 속에서 생산된 문화적 산물이자 문화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어 학습자로서의 한국 학생들의 언어적,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학수업의 일차적인 학습대상인 문학텍스트가 외국어로 쓰였고 낯선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들과 문학텍스트 간의 역사적, 공간적 그리고 문화적 거리감은 학생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과 두려움을 준다. 특히 외국어로 쓰인 ‘시’는 함축성과 상징성 외에도 언어나 형식면에서 다른 문학 장르보다 학생들에게 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불안감과 주저함을 최소화하고 독일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친숙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상황(독일어 능력, 독일문화에 대한 지식, 문학적 지식, 관심, 학습목표 등)이 문학작품의 선정이나 강의의 주제선정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강의의 일차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독일 시문학 작품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며 독자적으로 해석(Interpretation)할 수 있는 - 적어도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는 -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때 시문학 작품을 단지 하나의 그 자체로 완결된 예술작품으로만 바라보며 문학적-미학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독일시, 더 나아가서 독일 문학과 독일 문화 그리고 이 양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통찰을 얻는 것이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 III. 강의의 내용: 다루어진 시문학 작품들

강의의 원활한 진행과 강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의의 목표에 부합하고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텍스트의 선정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구체적인 세부기준들이 필요한데, 독일어권에서는 이미

---

독일 언어, 문학 그리고 문화는 전적으로 내부관점 Binnenperspektive 에 의해서 관찰되고 규정되어 진다. 반면에 비독일어권 독어독문학에서 이러한 것들은 외부관점 Außenperspektive 에 의해서 관찰되며, 낯선 것 Fremdes 으로 경험되고 인식된다 (Weinrich, 1994 참조).

1980년대부터 외국어 문학수업을 위한 텍스트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Ackermann, 2001; Froehlich, 1988; Glaap, 1989; Löschmann, 1986; Nünning, 2000; Wierlacher, 1987; Zeyringer, 1991 참조). 이 논의를 참고로 하여 필자는 독일 시문학 텍스트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보았다. 이때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동기, 텍스트의 언어적 측면, 주제 및 지역학적 측면, 문학적 측면 그리고 교수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내용이 흥미롭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가?
- 언어상의 난이도: 사용된 어휘, 관용적인 표현, 문장 등이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학생들이 혼자서도 읽을 수 있는가?
- 내용상의 난이도: 묘사된 내용이나 상황이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지 않은가?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배경지식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가?
- 주제가 학생들에게 친숙한가? 너무 생소하지 않은가?
- 주제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가? 학생들의 경험이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가?
- 지역학적 및 (상호)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 그 내용이 지역학적으로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는가?
- 텍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독일의 사회적·역사적 관계들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독일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 전통적인 미학적 평가기준에서 볼 때 텍스트가 문학적·미학적 가치를 지니는가?
- 텍스트가 (독일)문학사적으로 의미를 지니는가?
- 전체 수업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텍스트의 분량과 구성이 수업에 적합한가?
- 텍스트가 수업의 준비 및 진행에 너무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하지는 않는가?
- 교수법적 관점에서 텍스트의 구조가 수업에 적합한가?
- 텍스트의 주제가 수업에서의 토론에 적합한가?
- 텍스트가 학생들의 앞으로의 독일 문학작품 읽기 및 문학적 작업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필자는 위에 제시된 기준들 중에서 가급적 여러 항목을 충족시키는 텍스트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수업에서 다루어진 시문학 작품들을 다루어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sup>3</sup> 본고의 분량을 고려하여 각 작품의 작가, 제목, 생성년도만을 열거함.

3주차: 지역학적 관점에서 선정한 시작품들로 주로 동시대 시문학 작품들

- Aysel Özakin:** Die Türken in Deutschland  
Leben zwischen zwei Welten (1985)  
Neue Umwelt (1985)
- Reiner Kunze:** Die mauer  
Zum 3. oktober 1990 (1991)
- Adelheid Johanna Hess:** Verfehlt (1992)
- Heinrich Heine:** In der Fremde (1833)
- Sarah Kirsch:** Schwarze Bohnen (1969)

5주차, 6주차: 슈투름 운트 드랑의 시, 고전주의 시

- Johann Wolfgang von Goethe:** Mailied (1771)  
Wandrer's Nachtlid I (1776)  
Ein Gleiches/Wandrer's Nachtlid II (1780)

7주차, 9주차: 낭만주의 경향의 시, 사실주의(청년독일파) 시

- Heinrich Heine:** Auf Flügeln des Gesanges (1822-23)  
Die Lore-Ley (1823-24)  
Du bist wie eine Blume (1823-24)  
Die schlesischen Weber (1846)

10주차: 시적 사실주의 시

- Annette von Droste-Hülshoff:** Mondesaufgang (1844)

11주차, 12주차: 표현주의 시

- Georg Trakl:** Blutschuld (1909)  
An die Schwester (1909)  
Verfall (1909)  
Grodek (1914)
- Gottfried Benn:** Kleine Aster (1912)

13주차, 14주차: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

- Paul Celan:** Todesfuge (1945)  
Schwarze Flocken (1942-1943)

위에 선정된 시문학 작품들 중에서 3주차에 다룬 독일 동시대

작품(Gegenwartsliteratur: 최근 10 - 25년 사이에 생성된 작품)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통일 이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동·서독 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 즉 정서적 화합의 문제(Kunze와 Hess의 시)나 독일이라는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 소수자가 겪는 어려움(Özakin의 시)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독일 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학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주제이다.<sup>4</sup> 이러한 주제와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은 독일 문화와 독일인들의 정서를 살아있는 생생한 현재로 체험하며 막연한 거리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작품들은 한 사회의 문학작품이 그 사회의 역사적·사회적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이 또한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학수업에서 문학작품과 지역학적·문화적 주제를 함께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작품들이다.

6주차 수업에서부터 다루었던 나머지 작품들은(Goethe 이하) 문학사조의 흐름에 따라 각 사조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작품들 중에서 선정하였는데, 소위 정전(Kanon)으로 알려진 한국학생들에게도 친숙한 작품이거나 혹은 독일의 역사적·사회적 현실을 잘 반영하는 작품들이다.

#### IV. 강의의 진행

강의는 15주 동안, 매주 75분짜리 수업을 2회(이틀) 진행함으로써 한 주당 총 150분이다. 교재는 교수자가 선정한 시들을 모아 하나의 소책자로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다.

강의는 교수자의 강의, 학생들의 조별 발표, 소그룹토론 그리고 전체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학기 전반부에는 독일 시문학으로의 입문을 위한 개론적인 성격으로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교수자의 강의 중심으로 다루었다. 중, 후반부에는 문학사조의 흐름에 따라 대표적인 시인들의 작품을 발표, 토론, 강의의 방식으로 다루었다. 주별 강의진행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주	강의 주제	강의의 내용	수업방식
1	강좌 소개		강의

<sup>4</sup> 본고 뒤에 부록 참조.

	독일 시문학의 한국 수용	2차 문헌(안상원, 2001)을 통해 독일 시문학이 한국에 수용된 전반적인 흐름과 문제점 및 한국 대학 교육에서 독일 시문학의 수용 경향 개관	강의
2	시란 무엇인가	다른 문학 장르와 구분되는 시문학의 장르적 특성	강의
3	지역학적 관점에서 독일 동시대 시문학 읽기	독일 분단과 통일에 관한 역사적, 지역학적 자료/독일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지역학적 자료	강의
4	독일시의 형식	개별적 형식요소들(운각, 운율, 시행 및 시연의 형식)/시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	강의
5	슈투름 운트 드랑의 시	슈투름 운트 드랑/Goethe의 생애와 시	발표, 토론, 강의
6	고전주의 시	고전주의/Goethe의 시	발표, 토론, 강의
7	낭만주의 경향의 시	낭만주의/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Heine의 생애와 시	발표, 토론, 강의
8	중간고사		
9	사실주의 시	청년독일파/Heine의 시	발표, 토론, 강의
10	사실주의 시	시적 사실주의/ Droste-Hülshoff의 생애와 시	발표, 토론, 강의
11	표현주의 시	세기전환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상황/표현주의/Trakl의 생애와 시	발표, 토론, 강의
12	표현주의 시	Trakl의 시/Benn의 생애와 시	발표, 토론, 강의
13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	제2차 세계대전, 나치, 홀로코스트에 관한 역사적 자료/Celan의 생애와 시	학생들이 발표를 통해 주도적으로 수업을 주관

14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 종합토론	Celan의 시/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쉴러 리스트, 인생은 아름다워 등)	학생들이 발표를 통해 주도적으로 수업을 주관
15	기말고사		

학기 전반부에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던 중간에(3주차) 독일 동시대 시문학 작품들을 읽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전반부의 강의가 이론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학생들이 지루해 하거나 흥미를 잃게 될 위험이 있는데, 이때 현재 독일 사회에 대한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동시대 작품들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의 독일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
- 이 작품들은 언어적, 내용적, 미학적·문학적으로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독일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은 독일 문학작품을 독일어로 읽는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막연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문학수업 속으로 독일 지역학 및 문화에 대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 수 있다.
-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작품들의 주제가 독일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현상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미리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문학적 작업에 도움이 된다.

학생들에게 읽는 재미를 더해 주고,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목 없이 시문학 텍스트들을 나누어 주고 스스로 제목을 달아보고 주제를 찾아보도록 했다. 이때 학생들의 수준과 시문학 작품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객관식(제목들과 주제들을 따로 모아 제시하여 그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sup>5</sup> 혹은 주관식(아무 정보도 제공되지 않음)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학기의 중, 후반부에 독일시를 본격적으로 읽어 나갈 때 작품들을 독일어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따라서 수업에서 번역본은 배제되었다. 이때 매주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sup>5</sup> 본고 뒤에 부록 참조.



1. 수업 전까지 학생들은 해당 작품을 읽고 각자 번역하여 과제물로 가져온다.
2. 수업 초반에 학생들이 각자의 번역을 돌아가면서 낭송해보고, 이를 통해 똑같은 시가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는지 비교해본다.
3. 교수자가 작품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번역(직역과 의역)해 준다.
4. 학생들은 우선 작품에 대한 전문적 배경지식(작가 및 문학사조에 대한 지식, 그 당시의 사회상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자유로운 감상을 말하며, 작품에 주관적으로 접근하며 스스로 작품의 해석을 시도해본다.
5. 발표를 맡은 그룹이 작가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한다.
6. 교수자는 학생들의 발표를 보충하고, 해당 문학사조,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한다.
7. 이러한 전문적인 배경지식 하에서 학생들은 이번에는 소그룹토론을 통해 작품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며 작품의 문학적 해석을 시도해본다. 소그룹의 인원은 4 - 5명으로 했다. 상황에 따라 교수자는 학생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질문들을 미리 제시해준다 (예를 들어, 시의 외적/내적 구조는 어떠한가? 시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발견되는가? 작품에서 전기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떤 문학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되었는가?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주제)? 시인은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 형상화하였는가? 시인은 독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독자로서의 느낌은 어떠한가? 등).
8. 소그룹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9. 교수자의 정리 및 추가설명으로 마무리한다. 이 때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시를 다시 한 번 감상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시 낭송 듣기 (Celan의 <Todesfuge>의 경우 실제 작가의 육성으로 낭송한 것을 감상함), 시를 가곡/노래로 부르는 것을 듣거나 동영상으로 감상하며 따라 불러보기 (Mailied, Auf Flügeln des Gesanges, Die Lore-Ley, Du bist wie eine Blume 등을 주로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 (Dietrich Fischer-Dieskau), 페터 슈라이어 (Peter Schreier), 프리츠 분더리히 (Fritz Wunderlich)의 노래로 감상함).

강의 마지막 주에는 학생들과 함께 그동안 다루었던 독일 시문학 작품들, 문학과 문화의 관계 그리고 강의 <독일시의 이해>에 대한 종합토론과 평가로 한 학기를 마무리 했다.

## V. 강의의 평가 및 정리

강의 <독일시의 이해>는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 가량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sup>6</sup> 독일 시문학 작품을 독일어로 읽고 번역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 독일어로 된 작품들을 읽어냈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시문학 작품을 시 자체로만 다루지 않고 문학사조의 흐름에 따라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흥미로웠고, 이 과정에서 독일시와 독일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선정된 텍스트 중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세계와 접합점이 있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소위 ‘와 닿는 시’ (Goethe의 Mailed, Heine의 Loreley)와 독일의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현대시(Trakl과 Celan의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Droste-Hülshoff의 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사용된 언어(어휘, 시적 표현들)와 수사법들이 너무 어려워서 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시의 주제나 시 속에 표현된 감정이 전혀 ‘와 닿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고전시보다는 현대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자거나, 시인 당 시의 수를 줄이고 더 다양한 시인의 시를 다루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전반적인 수업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토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수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강의를 정리해보면, 실제 강의가 - 학생들의 평가에 기초해 볼 때 - 학기 초에 설정했던 목표에 상당히 근접한 것 같아 수업의 내용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업의 진행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독일어 읽기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독일시를 독일어로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수업시간에 번역본을 활용한다든지, 혹은 텍스트를 선정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쉬운 텍스트를 선정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미봉책보다는 학생들의 독일어 읽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학생들이 토론에서 보이는 수동성과 소극성이다.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수업 분위기가 침체되다 보니 교수자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수업을 이끌어가게 된다. 이로써 학생들이 창의적,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토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문제는 비단 본 강의의 문제만은 아니다. 학생들이 보다 자발적이고

<sup>6</sup> 학기말 종합토론 시간에 교수자가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객관식과 주관식의 형태로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바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필자가 제시한 강의 <독일시의 이해>는 저학년 과목이 아닌 3학년 이상의 고학년 과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좀 더 훈련된 독일어 읽기능력뿐만 아니라 독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 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VI. 맺는 말

최근 한국 독어독문학교육에서는 인터넷이나 영상물 등 다양한 시청각 매체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수업의 보조수단이 아닌 중심교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자로 된 문학텍스트는 문학수업에서조차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이러한 문학텍스트의 위축과 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무관심은 그러나 독일 문학텍스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어 문학수업의 특수한 목표와 외국어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학수업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본고는 독일 시문학 작품들이 비독일어권 독어독문학인 한국 독어독문학 수업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위축된 독일문학 수업의 개선과 한국 독어독문학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자의 경험을 모으고 공유하여 더 나은 문학교육의 방법을 찾아 문학수업이 차차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안상원. (2001). 독일 시문학의 수용. In 차봉희 (편저),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100년 I* (pp. 186-204). 한신대학교출판부.
- 이광복. (2009). 미디어 시대의 시 교육 - '은유 Metapher 교수법'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45, 91-113.
- 이영희. (1999). 음악이 접목된 독일시 수업 - <시와 음악> 강의 사례 보고서. *해세연구*, 2, 243-258.
- 정경량. (2002). 음악을 이용한 독일어 및 독시 수업. *독어교육*, 25, 97-116.
- 채연숙. (2000). 현대 독일시 수업모델 시론. *독일어문학*, 11, 231-256.

- 채연숙. (2004). 문화로서 독일 현대시와 그 교수법. *독어교육*, 29, 105-126.
- Ackermann, I. (2001). Fragen des literarischen Kanons. In G. Helbig, L. Götze, G. Henrici & H.-J. Krumm (Hrsg.), *Deutsch als Fremdsprache.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S. 1346-1353). Berlin/New York.
- Ehlich, K. (1994). Deutsch als Fremdsprache - Profilstrukturen einer neuen Disziplin. In G. Henrici & U. Koreik (Hrsg.), *Deutsch als Fremdsprache. Wo warst Du, wo bist Du, wohin gehst Du? Zwei Jahrzehnte der Debatte über die Konstituierung des Fachs Deutsch als Fremdsprache* (S. 300-322). Baltmannsweiler.
- Froehlich, J. (1988). Lesen können - Lesen wollen. Zur Problematik der Textauswahl für den DaF-Unterricht. *Informationen Deutsch als Fremdsprache*, 15(1), 56-60.
- Glaap, A.-R. (1989). Literaturdidaktik und literarisches Curriculum. In K.-R. Bausch, Ch. Herbert & H.-J. Krumm (Hrsg.), *Handbuch Fremdsprachenunterricht* (S. 119-126). Tübingen.
- Löschmann, M. (1986). Und immer wieder die Frage nach der Auswahl - Literarische Texte im Fremdsprachenunterricht. *Deutsch als Fremdsprache*, 23(1), 42-48.
- Nünning, A. (2000). Intermisunderstanding. Prolegomena zu einer literaturdidaktischen Theorie des Fremdverstehens: Erzählerische Vermittlung, Perspektivenwechsel und Perspektivenübernahme. In L. Bredella, F.-J. Meißner, A. Nünning & D. Rösler (Hrsg.), *Wie ist Fremdverstehen lehr- und lernbar?* (S. 84-132). Tübingen.
- Paefgen, E. K. (1999). *Einführung in die Literaturdidaktik*. Stuttgart/Weimar.
- Weinrich, H. (1994). Deutsch als Fremdsprache - Konturen eines neuen Faches. In G. Henrici & U. Koreik (Hrsg.), *Deutsch als Fremdsprache. Wo warst Du, wo bist Du, wohin gehst Du? Zwei Jahrzehnte der Debatte über die Konstituierung des Fachs Deutsch als Fremdsprache* (S. 77-89). Baltmannsweiler.
- Wierlacher, A. (1987). Zum Kanonproblem des Faches Deutsch als Fremdsprache (Interkulturelle Germanistik).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13, 194-199.
- Zeyringer, K. (1991). »Aus-Wahl-Verwandtschaften« - Ein Literaturkanon. Zur Germanistik an französischen Universitäten. *Informationen Deutsch als Fremdsprache*, 18(1), 40-54.

## 부록

선정된 시문학 작품의 한 사례<sup>7</sup>

Aysel Ö zakin:

Wir alle leben  
Zwischen zwei Welten  
Die Welt der fleißigen Mütter  
Und die der unzufriedenen  
Kinder.  
Die Welt der Liebe  
Und die der Gesetze  
Jeden Tag leben wir  
Zwischen zwei Welten  
Nachts auf einer Reise  
Ohne Grenzen  
Tagsüber mit der Ordnung  
Des Stundenschlages  
Wir alle leben  
In zwei Welten  
Die Welt der Sprache  
Und die der Wirklichkeit.  
Bald werden wir  
In vielen Welten leben  
Wenn die Zeit  
Eine Kurve macht.

(1985)

Aysel Ö zakin:

Wenn ich den Geschmack nachempfinden  
kann  
Bei einem Mädchen, das Crepes isst  
Und an mir vorbei geht.  
Wenn ich mir vorstellen kann  
Was die beiden alten Frauen vor mir  
Arm in Arm einander erzählen  
Während sie zurück  
Ins Altersheim gehen  
Nach Kaffee und Kuchen.  
Wenn ich die Mischung  
Spüren kann  
Von Spaß und Verlorenheit  
Bei den arbeitslosen Männern  
Die gemeinsam ein zerbrochenes Lied  
singen  
Am Brunnen.  
Wenn ich abschätzen kann  
Welche Zeitung  
Die junge Frau  
Mit der Baumwolljacke  
In der Tasche hat  
Oder der junge Mann  
Der mitten in Europa  
Von Afrika träumt.  
Wenn ich mir denken kann  
Worauf das Kind neugierig ist  
Das enttäuscht  
Die Hand der Mutter verläßt.  
Wenn ich die Suche nach dem Sinn des  
Lebens  
Nachfühlen kann  
Hinter dem verbitterten Gesicht  
Der alleinstehenden Frau.  
Wenn ich Herzklopfen hören kann  
Um mich herum  
Dann denke ich mir  
Hier lebe ich. (1985)

<sup>7</sup> 앞에서 언급했던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예. 즉 제목이 없는 상태로 시문학 텍스트들을 나누어 주고, 제목들과 주제들을 따로 모아 제일 뒤에 제시하여 그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iner Kunze:

---

Als wir sie schleiften, ahnten wir  
nicht,  
wie hoch sie ist  
in uns

Wir hatten uns gewöhnt  
an ihren horizont

Und an die windstille

In ihrem schatten warfen  
alle keinen schatten

Nun stehen wir entblößt  
jeder entschuldigung  
(1991)

Adelheid Johanna Hess:

---

Wir  
Fanden  
Zusammen  
Aber  
Trafen uns  
Nicht  
Der Blick  
In des andern  
Augen  
Sah nur  
Uns selbst  
Unser Reden  
Kein Verstehen  
Unser Schweigen  
Kein Erkennen  
Die Mauer  
Im verkopften  
Herz

(1992)

**Heinrich Heine:**

---

Mir träumte von einem schönen  
Kind,  
Sie trug das Haar in Flechten;  
Wir saßen unter der grünen Lind  
In blauen Sommernächten.

Wir hatten uns lieb und küssten  
uns gern,  
Und kosten von Freuden und  
Leiden.  
Es seufzten am Himmel die  
gelben Stern,  
Sie schienen uns zu beneiden.

Ich bin erwacht und schau mich  
um,  
Ich steh allein im Dunkeln.  
Am Himmel droben, gleichgültig  
und stumm,  
Seh ich die Sterne funkeln.

(1833)

**Sarah Kirsch:**

---

Nachmittags nehme ich ein Buch  
in die Hand  
Nachmittags lege ich ein Buch  
aus der Hand  
Nachmittags fällt mir ein es gibt  
Krieg  
Nachmittags vergesse ich  
jedweden Krieg  
Nachmittags mahle ich Kaffee  
Nachmittags setze ich den  
zermahlene Kaffee  
Rückwärts zusammen schöne  
Schwarze Bohnen  
Nachmittags ziehe ich mich aus  
mich an  
Erst schminke dann wasche ich  
mich  
Singe bin stumm

(1969)

**Titel:**

- Die mauer  
Zum 3. oktober 1990
- Die Türken in Deutschland  
Leben zwischen zwei Welten
- In der Fremde
- Neue Umwelt
- Schwarze Bohnen
- Verfehlt

**Themen:**

- Liebe
- Heimat
- Grenzen / Mauer
- Gefangenschaft
- Fremdheit/Fremdheitserfahrung



안은영  
서울여자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전화: 02) 970-5441  
이메일: ahn915@hanmail.net

Received on 31 October 2016  
Reviewed on 15 November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30 November 2016  
Accepted on 24 December 2016